

요셉에게 고난이 시작되다  
창세기 37:12-36

뒤늦게 깨닫는 ‘섭리’

하나님의 꿈은 대가를 치릅니다. 고난이 없는 꿈은 백일몽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낭만도 아니요 장미빛도 아닙니다. 참된 꿈은 언제나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 순간적인 꿈이 아니라 영원한 꿈,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라면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십시오. 시련을 만난 것은 억울하거나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정도를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꿈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17세의 꿈을 가진 소년 요셉을 통하여 배웁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17세의 사춘기 청소년이 이토록 거짓없이, 상처없이 순결한 성경적인 자녀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성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용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30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대신이 될 정도로 정치적 능력과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리더십과 지혜와 실력이 있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17세 때 두 가지 꿈을 꾸니다. 한번은 자기의 곡식 단이 일어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꿈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 집니다. 나의 이상은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상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아주 위험한 꿈입니다. 그러나 지울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꿈을 이야기 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작만 알 뿐입니다. 싹만 볼 뿐입니다. 그 나무와 열매와 영향력이 얼마나 큰 지는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13년 후 이 꿈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꿀 당시만해도 그것은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를 띠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줍니다. 요셉 자신이 총리대신이 되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몰랐습니다. 기근과 풍년이 들 때도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고 나서야 압니다. 예수를 만나야 자신의 과거가 해석됩니다. 저는 대학에 두 번 떨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 때는 그 사실에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것이 목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폐병을 앓아서 한 해 휴학을 했습니다. 그 때에도 저는 병 앓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고난이 깊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만큼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생각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지도 않고, 학교도 제대로 못나오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생애를

지켜주시고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것을 믿고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현실의 고난 때문에 미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꿈을 가진 사람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걷고, 남이 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꿈을 성취하는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목표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도 쉽게 갑니다. 가시에 찔리고, 넘어지고, 숨이 넘어갈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고통이 아니라 미래의 목표, 약속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 순종하는 요셉

이제 우리는 요셉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13절입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의 양 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세겜을 기억하십니까?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곳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은 하물의 가족과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속여 할례를 받게 한 후 모두 죽입니다. 복수를 두려워한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되고 도중에 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양 떼를 몰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들이 어떠한지 요셉에게 보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도 야곱의 편애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형들은 위험한 지역으로 양을 치러 보내고 요셉은 야곱과 함께 집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간단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라고 대답하십시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짧은 대답이었지만 요셉의 성품과 인격 속에 거룩과 순종과 정직과 순결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기 편합니다. 항상 말이 많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기 힘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기 편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2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여행중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을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만큼은 뒤돌아 보지 않고 주저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어린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 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저는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게 하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 구덩이에 던져진 ‘꿈꾸는 자’

15~17절을 읽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의 순종 앞에 기다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애를 써서 찾아간 형들은 요셉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18~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나타나자마자 형들은 요셉이 무슨 메시지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죽일 궁리부터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미움을 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역할을 잘못하면 자녀들 사이에 분열이 생깁니다. 두번째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로 부르면서 그를 죽이면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한이 서린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꿈을 가진 자가 시련에 부딪히고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아버지에게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21,22절을 보십시오.

르우벤이 들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던라

큰 아들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혼은 내 주되 죽이지는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살려두면 아버지에게 형들이 한 짓을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살려둘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형 르우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동의해야 합니다. 민중이란 다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할 수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생명을 상하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23,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것이 선한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서 받는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되는 일 마다 잘 되고 이익이 많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 내용을 노래했습니다. 외롭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하는 일마다 안 되면 하나님께 시험들지 않겠습니까?

25~2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익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 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마침 음식을 먹던 중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동의했고 결국 요셉은 은 20에 팔여가게 됩니다. 참으로 억울한 고난이요 기막힌 운명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현실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보니 요셉이 이미 팔려가고 없었습니다. 29,30절을 보십시오.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은 통곡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31~3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영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옷을 보내어 그 아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운명이었고 비극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순결한 꿈을 지닌 요셉에게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질문해도 누구하나 시원한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도 억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냥 두십시오. 나중에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십시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난리법석을 떨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의 '타이밍'

그 후에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6절을 보십시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하나님을 거부하면 운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섭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팔자 소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숨겨진 비밀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 팔려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운명의 고난이 나를 집어 삼킬 때, 그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 섭리를 보십시오. 알 수 없는 고난은 너무 큼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으면, 무섭던 고난과 사건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파도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미래가 어떨지 캄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버지와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네 가지 일을 주목하십시오.

첫째는 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웅덩이에 집어 넣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째는 왜 바로 그 시간에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갔을까요? 조금만 시간이 어긋났어도 요셉이 팔려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왜 갑자기 유다를 통해 구덩이에 있던 요셉을 은 20에 팔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넷째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왜 하필이면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99%는 그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이 요셉에게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때 그 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보내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서곡입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대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은 20에 팔린 요셉은 은 30에 팔린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팔렸으며, 예수님도 동족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여 주셔서 만지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기막힌 최악의 상황에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고난 중에서도 당신의 손길을 베풀어주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절망시키지 않고 우리의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을 다 들어서 새롭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고난도 주시지만  
섭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병들고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고난을 보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